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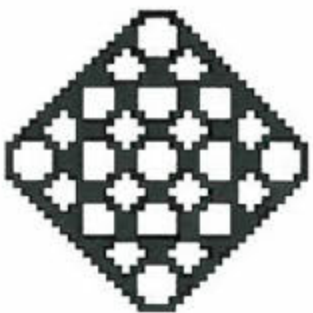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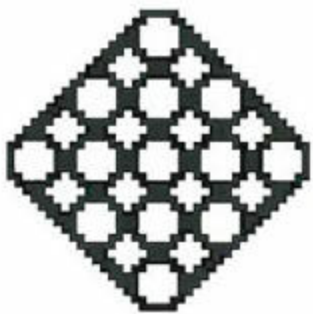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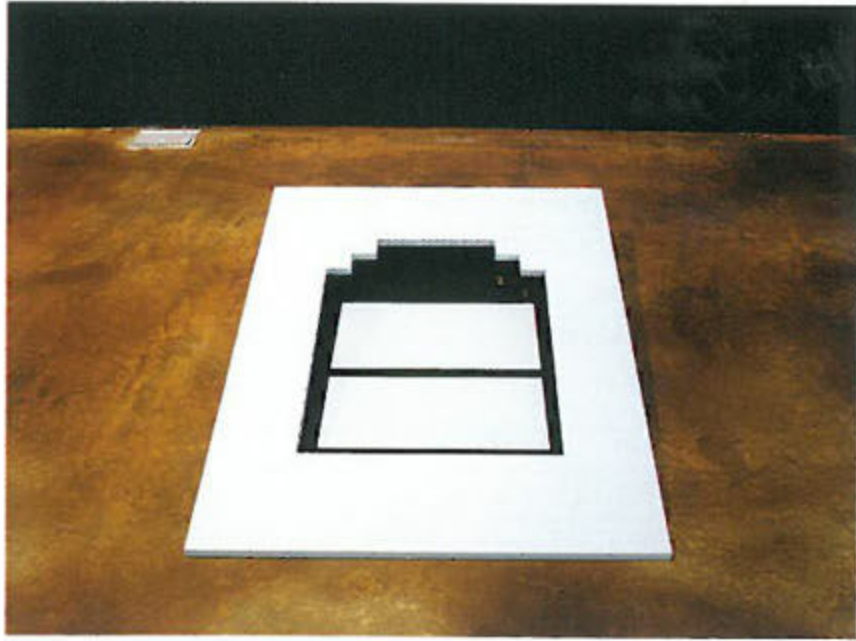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이은우 ← 홍승혜

모더니즘은 프레임이다!

돌이켜 보면, 난 늘 네모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삽화가 멋졌던 노란색 표지의 삼화출판사 《세계동화전집》은 어린 시절 내내 곁에 두던 친구였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았다. 배가 불룩했던 자그마한 브라운관 TV 모니터를 통해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을 빠짐없이 보았다. 그 '유기적 사각형'은 어린 내게 드넓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었다. 그리고 피셔 디스카우가 부른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가 실린 피터 브뤼겔의 〈눈 속의 사냥꾼〉 LP 재킷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도판으로만 접하던 이미지들이 부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네모난 캔버스에 물감을 쌓아 나갔다. 그리고 어느덧 그림은 점점 두꺼워져 3차원의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실재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다시 네모난 모니터로 화폭이 이동되고 붓과 물감 대신 어도비가 등장하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말레비치가 사각형을 무대 위에서 조명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오래전부터 곳곳에서 뭔가를 지지하고 구획하며 존재하고 있었다. 말레비치는 무의미의 의미를 선언하며 그 어떤 대상에서도 출발하지 않은 본질적 추상의 세계를 열었다. 그를 통해 이미지의 세계는 사막에 도달하고 종말을 선언했지만, 늘 그렇듯 종말 뒤에는 시작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그리드가 있었다. 사각형은 반복되고 있고 소진 불가능해 보인다.

*이은우는 이런 미술사적 흐름을 깊이 인식하고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젊은 작가이다. 초기에 서사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생산하던 그는 언제부터나 사물이 담고 있는 관념적 의미보다는 그 모양과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유통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지난여름 갤러리팩토리에서 선보인 전시 〈물건 방식〉은 이러한 그의 관심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주황색 사각형' '푸른 사각형' '녹색 원' 등의 제목을 단 일련의 기하학적 구조물들은 실제로 어떤 물건이 되기 위한 토대, 또는 전주곡으로 보인다.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로 자신의 조형적 아이디어를 부풀리며 '예술'과 '삶'이 만나는 지점을 고민한 흔적이다. 디자이너 김영나도 작가 이은우와 대칭점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다. 예술과 삶, 보다 소박하게 말하자면 미술과 디자인 사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향방을 가늠한다. 예술로서의 말레비치의 사각형을 '우상파괴'하고 '버내컬러'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는 모더니즘 신화를 승계하는 동시에 전복하는 흥미로운 행보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과 이를 꾸려 나갈 새로운 프레임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이 책을 만들고, 가구나 건축, 또는 그 이미지들을 꿈꾸는 건 정당하다. 고대인들의 땅은 정사각형이었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인간 터전의 알레고리로서의 사각형은 계속해서 뭔가를 받쳐 주고 담아내고 운영해 나갈 것이다. 삶과 예술의 계층 구조를 끊임없이 사색하는 작가 이은우가 자신만의 이상적 프레임들을 구축하길 기대한다. 무대에서 내려와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간 사각형은 침묵하고 있고, 중심도 위계도 없는 무정부주의 그리드 위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가능하다. 이보다 더 민주적일 순 없다. / 홍승혜



위부터 · 홍승혜 〈About Frame〉 자작나무 합판에 폴리우레탄 120×90×15cm 2014_국제갤러리 전시 전경 / 〈About Frame〉 드로잉 가변크기 2014 / 〈About Frame〉 스틸에 폴리우레탄 39×39×13cm 2014_누크갤러리 전시 전경

